

관인면 주민위한 장례식장 개장

관인농협 2억4천여만원 들여 장례식장 신축



관인농협합동조합은 관인면 탄동리 586-3번지에 2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장례식장을 건축하고 7월10일 개장식을 가졌다.

관인농협합동조합(조합장 이수기)은 관인면 탄동리 586-3번지에 2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장례식장을 건축하고 7월10일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는 서장원 포천시장, 황일현 농협 포천시지부장, 박병고 관인면장, 이수기 관인농협조합장, 농협중앙회 위중선 과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수기 조합장은 "경기도내 최초로 농협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로 관인면의 지역여건상 필수적인 시설물로 지역주민들에게 장례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인면 주민들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포천이나 철원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농협 장례식장 개장으로 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심각한 축산분뇨 문제 해결한다'

포천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 지역주민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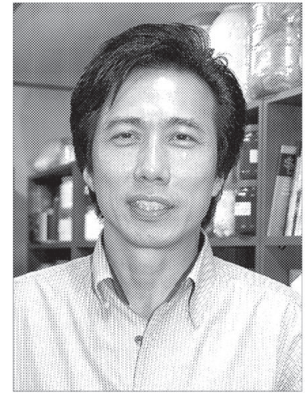
전국 최초로 전액 민자유치를 통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진행 중인 포천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7월14일 영평면 영평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예정지인 영평리 1, 2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 1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이학수 포천시 농축산과장을 비롯해 이인화 영평면장이 참석해 지역주민들에게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했다. 포천시 축산 규모와 축산이 차지하는 지역경제 효과, 축산 분야에서의 문제가 되는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해양투기 금지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축산분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영평, 영평리 이장들은 "우리 지역은 미군 사격장, 공공환경시설,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을 심히 유

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장들은 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운영 시 폐기물 등이 도로에 유출되지 않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지원사항은 영평리 마을회관 신축, 트랙터, 액비살포기, 조사료장비 등 영농 작업기 구입지원 및 폐업을 활용한 지역 난방 시스템 등이다. 포천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예산 확보와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서 체결 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민간사업자와 전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만큼 도비를 수반한 지원 및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빈 기자 csbkj@hanmail.net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70

(주)메이스터

효율적 생산공정 대표이사 직접 설계 시공 차별화



대표이사 송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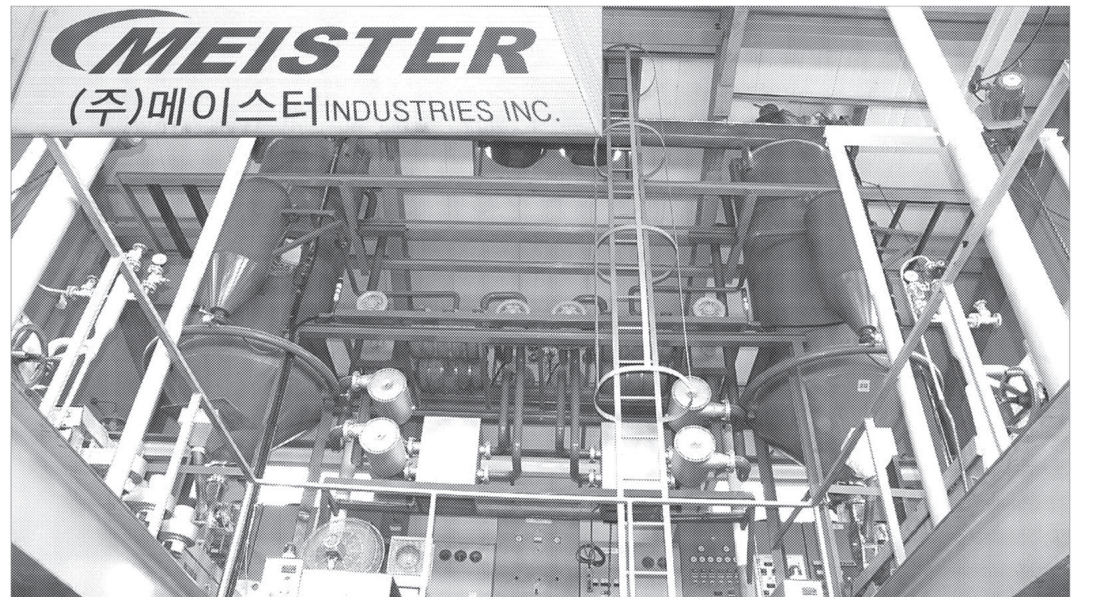
(주)메이스터(대표이사 송종복)는 새로운 섬유 소재의 품목 개발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섬유메이커와의 특수소재 품목개발을 통한 섬유제조 및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수출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Cip Lounge Card를 받아 인천공항 VIP출입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포천에서는 섬유소재와 (주)메이스터 민이 이 카드를 받았다. (주)메이스터는 현재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47-2번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빌딩 910호에서 마케팅 및 무역업무를 하고 있다.

다가왔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1월 창립하여 포천시 군내면 공장에서 2년, 가산면 금현리 공장에서 4년 등 6년 동안 입대공장 시절을 극복하고 현재 1천800평 부지에 500평 규모의 자체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주)메이스터는 staple fiber라는 단섬유를 제조하고 있다. 방사(섬유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녹여서 가는 구멍을 통하여 실을 뽑아내는 일) 시설을 갖추어 생산하고 있으며 원사나 토우(tow)등의 특수사를 사용용도에 맞게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등 다양한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제품들은 니들펀칭(needle punching)이나 기타 다른 가공을 통해 필터용 부직포와 특수종이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수원자재 수입과 제조마케팅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차별화된 품목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메이스터는 새로운 섬유소재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의 섬유메이커와 특수 소재 품목개발을 통한 섬유제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송 대표이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섬유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시장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섬유산업이 위기를 겪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고부가가치 수출로 국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건다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주)메이스터는 국제적인 무역회사로서 화학 섬유에 대한 다양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미국,

세계 화섬제품의 Main Agent로 특별한 마케팅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

(주)메이스터는 다양한 섬유 신소재와 특수사를 바탕으로 특수원자재 수입과 제조마케팅을 통한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송종복(사진·44)대표이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차별화된 제품,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개선·품목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이사는 제품생산에 위한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다. 남들이 섬유수출을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송 대표이사는 "사양산업은 있어도 사양수출은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효율적인 공정개발을 위해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송 대표이사는 수출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시설을 확장해야 할 시기가

유럽 등 세계 화섬제품의 Main Agent로 특별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섬유 원자재에 대한 꾸준한 정보수집으로 개발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주요 화학섬유 메이커들과 지속적인 장기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한 고객과 생산자간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신소재 A-10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터치감으로 자연스럽고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송 대표이사는 "제품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 고객의 요구조건에 발맞추어 항상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메이스터는 다양한 섬유 신소재와 특수사를 바탕으로 특수원자재 수입과 제조마케팅을 통한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보디스플레이 기술전문가 교육생 모집

대진대학 산학협력개발원, 국비 지원 30명 선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개발원(원장 김운배)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예정자 포함)로서 고용보통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7월30일까지 30명을 면접 선발하여 정보디스플레이 기술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8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와 12월15일부터 2009년3월13일까지 3개월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6시간 교육을 대진대학교 공과대학 및 정보디스플레이 실습관에서 실시한다.



특히 김 원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LED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정보디스플레이 기술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는 향후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개발원(031-539-2900)으로 문의하면 되며 교과목과 담당교수는 다음과 같다. ▶OLED구동 및 시스템(백재갑) ▶정보디스플레이 공학 차세대 디스플레이(양재용) ▶OLED제조공정 OLED공학 실습(주성후) ▶디스플레이 광학 및 색채이론(박승욱) ▶LED 기구설계(권혁홍) ▶OLED 재료 물질(한만소) ▶LCD BLU 및 LED(나현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7월14일 영평면 영평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벼 병해충 긴급 방제협의회 개최

혹명나방 발생에 따른 공동방제농약 지원

포천시는 7월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행정, 농업 등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 농업인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혹명나방 공동방제농약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혹명나방 공동방제 농약은 멀구류가 동시방제되고 이삭도열병 문고병 등과 혼용 가능한 농약으로 선정해 후기 벼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공동방제 농약은 세 배로유제, 명타자유약제, 코나단수화제 등 지역방제협의회(회, 면, 동별)를 통해 농가별 희망농약을 신

청한 뒤 각 지역 농협에서 7월 하순까지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용규 소장은 혹명나방은 피해가 심할수록 벼의 등숙비율, 천립중 감소와 복합립 미숙립의 증가 등 식미치가 저하되고, 질소 소비량이 많을수록 벼의 염록소 함량이 많을수록 혹명나방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작기에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방제농약이 빠른 시일 내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농협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성빈 기자 csbkj@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의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거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거나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인에 설립절차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

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

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6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2층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

▶해해발생 개요 2007년10월0일 오후4시경 00소세 신축공사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크레인으로 합판을 2층에 올려놓은 후 내려오던 중 사다리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실족하여 2.1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사해발생원인 가. 계단 설치방법 부적절 계단의 안전난간 및 발판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계단 설치방법 부적절 나. 안전모 등의 보호구 미착용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실시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견고한 계단 설치 후 작업 실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특성상 부득이 계단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계단 설치를 완료한 후 승, 하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나.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ABE형(낙하 또는 비레,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방지) 또는 AB형(낙하 또는 비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의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턱끈은 단단히 조임.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626-6091)

국민연금 Q&A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는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 60세가 도달된 후에는 장애인연금액 변경(정규) 제한 조항 신설

- Q 5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혼해서 전처에게 분할연금으로 25만원씩 지급되고 저는 매월 25만원씩 지급받았는데도 몇 일전 전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러면 저에게 노령연금이 다시 전액 지급이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수급권은 전처의 권리가기 때문에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었다고 해서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다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Q 60세가 넘어서서 장애인 연금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까.
 - ▶60세가 넘어서서 장애인 연금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 Q 옆집 김영감은 작년에 60세가 넘어서도 변경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건가요?
 - ▶60세가 넘을 경우 장애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연금액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Q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 ▶법 시행일(2007. 7.23)부터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서 031-544-8700
- Q 저는 5년 전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지금 나이는 62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병이 악화되어서 장애인 연금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